



<애덤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연속세미나 제3차>

ADAM SMITH

HIS LIFE, THOUGHT, AND LEGACY

Edited by RYAN PATRICK HANLEY

애덤스미스와 자유무역

Douglas A. Irwin

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오경수

INTRODUCTION

- 자유무역을 지지하고,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경제학자
 - 국제무역의 이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, 각국이 서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
 -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는 강력한 논리를 개발
 - 무역정책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가 그의 견해에서 출발
- 애덤스미스의 주장은 무엇인가? 오늘날에도 유효한가?

THE CASE FOR FREE TRADE

- 사회에서 상업의 역할에 대한 애덤스미스의 견해
 - 개인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욕구에 의하여 동기를 부여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
 - "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지원하거나, 돈이나 다른 상품으로 가장 많은 양을 교환하기 위해 [자신의 노동력과 자본을] 사용하려고 노력한다"(WN, IV.ii.8)
 - 시장 경제에서 더 나은 삶(자신의 이익)을 추구하는 개인은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

THE CASE FOR FREE TRADE

- 정부 개입에 대한 애덤스미스의 입장
 - 자유방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, 옹호론자가 아니었음
 - 정부가 특정 공공재를 제공하고 법과 정의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장 교환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, 또 해야 한다고 믿음
 - 동시에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을 가짐
 - 정부는 이기적인 상인보다 국민의 요구에 훨씬 덜 반응하는 경향
 - 특수 이익 집단이 정부를 조종하여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유도

THE CASE FOR FREE TRADE

- 개인과 국가를 비유 (WN, LJB)
 - 국가 간의 무역도 개인 간의 무역과 비슷하다고 생각
 - 개인이 무역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
 - 인간은 서로 물품을 교환하려는 본능적인 성향
 - *“두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역은 반드시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. 상업의 목적은 자신의 상품을 자신에게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상품과 교환하는 것이다. 두 사람이 서로 거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둘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. 두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”* (LJB 261-62)

THE CASE FOR FREE TRADE

- 애덤스미스의 자유무역에 대한 주장
 - 개인과 국가 간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, 강력한 정책적 결론에 도달
 - *“모든 국가와 모든 물품에 대해 자유로운 상거래와 교환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”*
(LJB 269)
 - 자유무역 주장은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
 - 애덤스미스는 자유무역과 자유방임주의, 두 사상을 혼동하지 않았음
 - 정부가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거나 자유무역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음

THE CASE FOR FREE TRADE

- “자유수출과 자유수입의 자유주의 체제”의 옹호
 - 무역을 통해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점
 - 각국은 “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즐거움을 증가시키는” 불필요한 것들을 교환할 수 있음
 - *“연간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늘림으로써... 사회의 실질적 수익과 부를 증가”* (WN IV.i.31)

THE CASE FOR FREE TRADE

- 무역은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어 전 세계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메커니즘
 - 분업은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인
 - 분업은 시장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, 자유무역은 시장을 넓힘으로써 더 정교한 분업이 가능해졌고, 생산성을 향상시켰음
 - 자유무역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국가 간 지식 교환을 촉진 (WN IV.viii.c.80)

CASE AGAINST PROTECTIONISM

- 중상주의 무역정책 “수출증진과 수입제한”
 - 보조금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, 규제를 통해 수입을 줄이는 것
- 애덤스미스의 경제정책,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기준
 - 한 국가의 국민소득의 실질 가치, 즉 사회의 연간 수입(또는 생산량)에 미치는 경제 전반의 영향

CASE AGAINST PROTECTIONISM

- 중상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

- 특정 산업이나 부문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자원배분

- *“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았을지 모르는 방향으로만 일부를 전환할 수 있을 뿐이며, 이러한 인위적인 방향이 사회에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결코 확실하지 않다”* (WN IV.ii.3)

- 고용과 생산의 장려 및 유치산업보호론

- *“연간 생산물의 가치 상승을 가속화하는 대신 지체할 것이며, 진정한 부와 위대함을 향한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대신 방해할 것이다”* (WN II.v.21)

CASE AGAINST PROTECTIONISM

- 중상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

- 수출장려를 위한 보조금 제도

- *“보조금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무역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무역”* (WN IV.v.a.24)

- 경제 발전을 장려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

- *“모든 중상주의 규제의 칭찬할 만한 동기는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지만, 다른 국가의 제조업에 피해를 끼치고 경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이를 달성하려고 하였다”* (WN IV.viii.8)

CASE AGAINST PROTECTIONISM

- “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자, 최종 목적”
 - 애덤스미스는 “정부는 소비자를 돕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생산자의 이익을 돌봐야 한다”고 주장
 - 수입 제한과 수출 보조금은 “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특정 계층의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되는 완전한 속임수”
 - 중상주의 체제의 설계자는 정부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생산자
 - 소비자의 이익은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거의 희생

EXCEPTIONS

- 수입관세가 허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
 - 특정 산업이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
 - 국가의 부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, *“부유함보다 국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”* 여전히 정당
 - 국내 상품에 수입품에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
 - 세금의 균등화, 공정성을 위해 수입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외 상품의 균등한 조세 대우

EXCEPTIONS

- 수입관세 도입에 대한 고려사항
 - 무역의 제한에 대한 보복의 당위성 (전술상의 문제)
 -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 (조정 문제)
- 수입경쟁으로 인한 노동과 자본의 이탈에 대한 우려
 - 수입품은 국내 상품에 대한 불완전대체재
 - 자본조정(capital adjustment)과 재고용(reemployment)의 발생

ADAM SMITH'S LEGACY

- 정책적 영향

- 1830년부터 1850년까지 영국의 무역 정책은 동인도회사의 독점권 폐지, 서인도제도 설탕 특혜 폐지, 옥수수법 폐지, 항해법 폐지 등 광범위한 개혁을 거침

- 1980년대 무역자유화와 수출지향성 강조

-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서 무역 확대가 더 큰 번영의 길임을 반증
-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 논쟁